

'올해 탄소중립 교육 원년'

도교육청, 탄소중립 기본교육 종합계획 수립

2022 개정교육과정 기반 연구·용역 내달 추진

탄소중립 실천 중점학교도 운영... 기후위기 대응

전북도교육청은 탄소중립 기본교육 종합계획을 수립, 2024년을 탄소중립 교육 원년으로 삼겠다고 10일 밝혔다. 탄소중립 기본교육 종합계획은 한정수 도의원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탄소중립 교육과정 개발 및 기본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오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법과 함께

시행됨에 따라 학교의 탄소중립 교육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12월 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TF 자문단을 통해 학교 탄소중립 교육을 위한 실행 방안을 논의 중이다. 실태조사 결과 교육과정 편성 및 운

영 가이드라인(31%), 교육과정 연계 수업자료(24%), 온라인 교육 콘텐츠(22%)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22 개정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 탄소중립 교육과정 개발 연구·용역 사업을 2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탄소중립 실천 중점학교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정성환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이를 통해 학교의 보편적 탄소중립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지난해 초등생 구강진료 지원 '만족'

학생·학부모 95.3%로 나타나... 도교육청, 올해도 추진

전북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초등학생 구강진료 지원 사업이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초등 구강진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학생 7,711명 중 설문에 응답한 학생과 학부모 939명의 만족도가 95.3%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치아 관리에 자신감이 생겼다', '치아에 좋고 나쁜 음식을 구별할 수 있게 됐다' 등을 만족의

이유로 꼽았다. 사업에 참여한 치과 역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치과 45곳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97.8%가 구강진료 지원사업이 '학생 구강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이후 '사업에 계속 참여하겠다'는 비율도 91.1%였다. 한편 초등 구강진료 지원사업은 영구 치아 배열이 완성되는 시기인 초등학교 4학년에게 1인당 4만원 이내의 진료비를 지원한다. /장은성 기자

학생들은 집 근처의 협력 치과(236곳)에서 치석제거, 치아 홈 메우기, 치아우식 초기치료, 구강보건교육 등 개별 맞춤형 진료를 받는다. 치과 방문이 어려운 경우가 학교로 방문하기도 한다. 이서기 문예체건강과장은 "구강진료 지원사업이 초등학생들의 올바른 구강 건강 습관 들이기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올해는 사업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대상 학생 모두가 구강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드론연계 산업 협의체 구성·포럼

전주비전대학교 예코업 혁신융합대학사업단(단장 김영주)은 지난 9일 행복기숙사 2층 비전컨벤션홀에서 예코업분야 산업 활성화를 위한 드론연계 산업 협의체 구성 및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첨단분야(예코업) 혁신융합대학사업 주관대학인 고려대학교 세종예코업혁신융합대학사업단장인 김영주 교수 및 고려대학교 세종예코업혁신융합대학사업부단장 김영진 교수 그리고 주식회사 네이처엔플랜 정재운 대표, 우주무인항공산업(유) 김경일 대표, 한들솔루션 최재용 대표, 국제드론(주) 윤정석 대표, 윈스젠 이윤성 대표, 에스디 무인항공 명성도 대표, 프로윈테크 서원식 대표, 고창드론항공교육원 홍기식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전주비전대학교 예코업 혁신융합대학사업단은 예코업 분야 기업과 함께 오염방지 및 관리, 온실가스 감축 등의 분야에서 혁신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 비교과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생 및 재직자의 혁신 역량 강화와 활용 가능한 인프라 공유 그리고 예코업 분야 혁신 R&D 발굴 및 추진 등과 관련한 연대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장은성 기자

초등 신입생 예비소집 참여 아동 1만939명

5명 소재 미확인... 도교육청, 안전 여부 확인 중

2024학년도 전북지역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 결과 5명의 아동이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10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은 전년(1만2,905명) 대비 1,382명 감소한 1만1,523명이다. 이중 1만939명(94.9%)이 예비소집에 참여했고, 584명(5.1%)은 불참했다. 예비소집 불참아동 584명 중 취학유예·면제, 해외 거주, 해외유학 등으로

불참한 아동은 579명이고, 소재 확인이 안 된 아동은 5명이다. 지역별로는 전주 1명, 군산 2명, 익산 1명, 고창 1명 등이다. 조철호 행정과장은 "아동의 소재뿐 아니라 안전여부 확인을 위해 학교와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 경찰서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보호자와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는 등 미취학 아동 안전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가인법정변론 민·형사 부문 우수상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최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제15회 가인(街人)법정변론경연대회에서 민사 부문 및 형사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초대 대법원장으로 독립운동가인 '가인 김병로' 선생을 기리기 위한 이 대회는 올해 민사 76개 팀과 형사 34개 팀 등 총 110개 팀, 330명이 참가했다.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은 15기 재학생들로 구성된 민사 부문 팀(김민지·김소연·김호진)과 형사 부문 팀(김경진·김다예·최준혁)이 부문별로 16개 팀에게만 주어지는 본선 진출권 확보에 이어 각각 8등 이내에 들어 우수상을 받았다. 민사 부문 팀원들은 "가인 법정변론 대회를 참여를 통해 우리 법학전문대

학원 원우들도 전국 대회에서 충분히 기량을 펼칠 수 있다는 점과 스스로 믿고 도전한다면 결국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또한, 형사 부문 팀원들도 "함께 형사법 법리들을 고민하고, 이를 어떻게 사안에 적용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실력도 많이 쌓았다"며 "16기 이하 후배들도 기회가 된다면 대회에 참가해 좋은 결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제9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금상 수상과 함께 2024년 신규 임용 검사 시험에서 최종 2명의 합격생을 배출하는 등 좋은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주대학교는 전주대, 원광대, 우석대 등 전북권 3개 LINC 3.0 사업단 연합으로 오는 17일까지 6박 9일간 미국 현지에서 '2024 CES 글로벌 교육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북권 3개 LINC 3.0 연합, CES 글로벌 교육연수

전주대·원광대·우석대 CES 2024 참관 차 미국 방문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전북권 3개 LINC 3.0 사업단 연합으로 오는 17일까지 6박 9일간 미국 현지에서 '2024 CES 글로벌 교육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24 참관,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내 구글 캠퍼스, 애플 파크, 인텔 뮤지엄, 메타 본사, 스탠퍼드대학교와 버클리대학교 방문

등 미래 혁신 첨단 기술 체험의 기회 제공을 통한 글로벌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전북권 3개 대학(전주대, 원광대, 우석대) 연합으로 4차 미래상대회에서 미래혁신상을 받은 전주대 일본어문화학과 김예훈 학생을 비롯해 각 대학 LINC 3.0 사업 참여 우수 학생 총 15명을 선발해 인솔 교직원 3명과 함께 진행한다. 이를 통해 세계적인 첨단 정보기술(IT)의 변화와 흐름을 직접 체험 및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세계 최고의 정보기술(IT)단지인 실리콘밸리와 스탠퍼드대학교 탐방 및 귀국 후에는

글로벌 연수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전주대 김예훈 학생(일본어문화학과 2년)은 "AI(인공지능)를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면서 첨단분야 AI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줘 감사하다"며 "인공지능 분야에서 갖춰야 할 인재상 등을 배워 글로벌 창의 융합 IT 인재로 성장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